

통찰하지 못하면 선 아닌 명사일 뿐

한국선학회 추계학술대회서 현각 스님 퇴임 기념 기조발제 및 고불식

대장경 천년의 해를 맞아 대장경과 선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선학회(회장 송묵)는 11월 19일 동국대 다량관 세미나실에서 '대장경과 선'을 주제로 前 학회장 현각 스님의 퇴임 고불식을 겸한 2011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현각 스님(동국대·사진)이 기조발제 '선과 경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을, 신규탁 연세대 교수가 주제발표 '중국 선종 역사 속에 드러난 화두의 생성, 상의, 참구에 관한 검토'를, 김호귀 동국대 BK연구교수가 '선종을 통한 본래성불 사상의 전승'을, 최동순 동국대 연구교수가 '역경사 월운 스님과 그 제자들의 구술에 나타난 선장의 번역과 의의' 등을 발표했다.

현각 스님은 기조발제에서 "언설로 마음을 이해하는 자는 언설을 조율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 언설을 이해하는 자는 언설은 물론 마음까지도 조율한다"는 말로 선[마음]과 언설[경전]의 관계성을 설명했다. 스님은 "부처님의 설법은 마음과 경전의 가장 조화로운 모습"이라고 말했다.

〈원각경〉〈수능엄경〉 등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비유가 등장한다. 이는 선은 체험의 실상이고 체험의 가르침이며 그 전승이기 때문에 선자(禪者)의 심경은 본래 상식을 떠나 있음을 가리킨 것을 설명한다.

현각 스님은 "경전과 선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선과 언어는 같은 듯 다른 듯 하나인 듯 둘인 듯 하며, 상즉의 관계인 동시에 상입의 관계라는 설

명이다. 스님은 "선의 종지인 불립문자, 교외별전, 적지인식, 견성성불은 언설을 통해서선선의 본질에 접근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선은 언설을 통하지 않고는 접근할 수도 없다"며 "언설로 선에 접근하려면 체험과 자각이라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각 스님은 "생명이 있는 언어는 그 자체가 선이고, 언어를 지닌 선은 살아있다"며 "통찰의 내용이 없는 것은 선이 아닌 명상, 정신집중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앉은 자리에서 지혜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앉아있는 상태만으로는 '오투기'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스님은 "선종이 불립문자 교외별전을 표방하면서도 선종만큼 전적이 많은 종파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언설이 곧 사상이며, 사상의 표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스님은 "선종이 불립문자 교외별전을 표방하면서도 선종만큼 전적이 많은 종파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언설이 곧 사상이며, 사상의 표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가갈 수 있는 보편성을 갖추게 된다"고 말했다.

신규탁 교수는 주제발표 '중국 선종 역사 속에 드러난 화두의 생성, 상의, 참구에 관한 검토'를 통해 "당나라 시대의 선사들은 상대와의 이야기[화두]를 통해 일체의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깨고 '자기 자신의 본래면목'을 직접 체험할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성스런 진리조차도 없으니 집착하지 말라'는 선사의 가르침[화두]을 갖고,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방법[別語]'도 개발하고, 상대가 대답을 못하면 '대신 대답해 주는[代語]' 방법도 만들어 냈다.

신 교수는 "북송대에 이르러서는 '선배들이 남긴 이야기' [화두]를 소재로 문학적 강의를 통해 수행자에게 본래 면목을 체험할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송대의 선승들은 당나라 때부터 갖고 있던 축적해 온 시문학의 솜씨를 발휘했고 선은 문학과 어우러지게 됐다[詠古文學].

이를 신규탁 교수는 "진술할 체험보다는 남의 멋진 말이나 흥내 내게 되면서 체험은 뒷전이고 압운이나 따지고 율격이나 맞추는 꼴들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화두가 의심을 일으키는데 도리어 방해가 되자 등장한 것은 무(無)자 화두였다.

신 교수는 "이야기[화두]를 만들기→강의하기→의심하기로 변화하며 선승들이 목표로 했던 것은 견성이었다"고 말했다.

김호귀 교수는 주제발표 '선종을 통한 본래성불 사상의 전승'에서 "본래성불 사상은 선경에서 근원을 찾아볼 수 있다. 이



것이 보리달마를 통해 새롭게 전래되면서 초기선종의 조사들에게 확고하게 구축되고 전승된 것은 중국 선종의 조사선이 출현한 바탕이었다"고 말했다.

본래성불 사상은 선맥을 따라 헤가의 선심(禪心), 승찬의 신심(信心), 도신의 수일불이(守一不移), 흥인의 수본진심(守本真心) 등으로 전승됐다.

김 교수는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 '즉심시불(即心是佛)' '대기대용(大機大用)' 을 통해 본래성불 사상은 선경과 선어록을 벗어나 일상 생활에 정면으로 등장했고, 중생교화의 모습으로 전개됐다"고 설명했다. 김호귀 교수는 이를 "본래성불의 개념이 철저한 현실의 문제가 되며 수행과 깨침의 보편화를 조래했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lana@gmail.com

개신교의 '도마복음', '법왕경' 과 닮았다

이자평 씨, 한국불교학회 추계학술대회서 주장

종교간 화해와 상생이 강조되는 가운데, 기독교의 <도마복음>이 불교의 <법왕경>과 유사하다는 발표가 있어 눈길을 끈다. 이자평(동국대 박사과정·사진) 씨는 11월 19일 동국대 학명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불교학회 2011 추계학술대회에서 '법왕경과 도마복음으로 본 불교와 기독교의 위경'을 주제발표 했다.

〈법왕경〉은 해탈도로 반야비라미 수행을 강조하는 경전이다. '일심(一心)' 등을 통해 독특한 교학 체계를 이뤘 여래장사상의 중국적 변형이라 평가되며 위경으로 알려져 있다. 〈도마복음〉은 기독교의 비정통인 영지(靈知)를 강조한 복음서 가운데 하나이다. '도마'는 예수가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랍어로 '쌍둥이'를 뜻한다. 이자평 씨는 "쌍둥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이



구현하는 참 빛을 가질 수 있음을 뜻한다. 이는 <법왕경>의 불성(佛性)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 씨는 "〈도마복음〉은 깨달음(gnosis, 靈知)을 강조한다. 이는 반야에 비견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이자평 씨는 불교의 계와 정토는 개신교의 율법과 천국으로 대비하며 "〈법왕경>과 〈도마복음〉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토이라는 벽을 뛰어 넘어 종교에 다양성을 부여하고 종교 자체의 이해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글로벌 전하던 오대산 신앙결사 확인돼

국립중앙문화재연구원, 강릉 굴산사지 조사 과정에서 명문 기와 출토



강릉 굴산사지 전경

신라 구산선문의 하나였던 강릉 굴산사지의 사역과 오대산 신앙결사가 확인됐다. 국립중앙문화재연구원(소장 김성범)은 11월 17일 강릉 구정면 굴산사지 발굴현장에서 굴산사지 제2차 시굴조사 결과에 대한 자문회의와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2010년부터 진행된 시굴조사 결과 북쪽 경계로 보이는 석축시설과 동쪽 건물지 외곽 담장지, 서쪽의 환산, 남쪽의 회랑식 건물지의 끝단이 사역(寺域)의 범위로 추정·발표됐다. 면적으로는 3만1500㎡이다. 사역 내부에서는 정교하게 치석된 대형의 방형초석 건물지, 연지(蓮池)로 추정되는 집수시설, 담장지, 원형석군(圓形石群) 등이 확인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오대산 금강사' (五臺山 金剛社)가 새겨진 기와가 함께 출토됐다. '오대산 금강사'는 <삼국유사> 권 제3 탐상 제4 대산오만진진(臺山五萬眞身)조에 따르면, 국가의 안녕을 위해 오대산의 동서남북 및 중앙에 위치한 5개소의 사찰에서 각각 결성되었다는 신앙결사

(信仰結社) 가운데 하나이다. 그동안 오대산 '남대(南臺, 남쪽을 지칭)'의 '금강사'라는 신앙결사는 사료로만 전해졌을 뿐 정확한 위치와 장소(사찰)가 불명확한 상태였다.

김성범 국립중앙문화재연구원소장은 "이번 굴산사지에서 금강사 결사가 이루어진 것을 고고학적 유물로서는 최초로 확인함으로써 향후 불교사상사와 고고미술사 등 관련 분야의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굴산사는 신라 하대 구산선문(九山禪門) 중 사굴산문(開窟山門)의 본산이었던 굴산사는 강릉단오제(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의 주신인 범일국사(梵日國師)가 신라 문성왕 13년(851)에 창건한 영동지역 선종(禪宗)의 중심 사찰이다. 그 주변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당간지주(보물 제86호, 높이 5.4m)와 승탑(보물 제85호) 및 석불좌상(문화재자료 제38호) 등의 관련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다.

조동섭 기자

사부대중이 이해한 만큼 승가노후복지 규모·혜택 커져

한국불교선리학회, '승가노후복지의 현황과 과제' 학술회의 개최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선학원 이사장)은 11월 22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승가노후복지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12회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선학원 전국분원장회의의 입석식에 이어 개최된 학술회의에는 법진 스님의 기조연설 '승가노후복지의 현황과 과제'를 시작으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등이 진행됐다.

연구원장 법진 스님은 기조연설에서 "불교계의 스님들은 독신 출가수행자라는 특성상 노년에 대한 염려와 위협이 타 종교 성직자에 비해 그 노후 수위가 높음에도 승려노후복지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스님은 "스님들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주거보장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단·차원의 보편화, 체계화는 요원한 실정"이라며 "이번 학술회의를 계기로 분원장스님들이 노후 걱정 없이 수행과 전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진수 위덕대 석좌교수는 주제발표 '한국노인복지정책의 구조와 개선방향'을 통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이 갖는 현황과 특성, 문제점, 정책적 개선 방안 등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노인복지 문제에 대한 정책구도는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

이 아니라 '선 사회보장 후 가정보호'의 개념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종교문화연구원 소장은 '종교별 성직자 노후복지 비교'를 통해 "불교계의 보편적 복지체계가 보다 확산되면 중·단·차원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숙 동국대 前 겸임교수는 주제발표 '불교종단 교역자의 복지제도 및 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조계종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천태종·진각종에 비해 선별주의적 경향이 강했다"고 지적했다. 중·단·차원이나 중무기관에서 소임을 맡은 스님들을 우선적인 수혜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뚜

렷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이 겸임교수는 "이번에 조계종이 제정한 승려복지법은 무소독자·무소임자를 우선해 재적승려 전체를 포괄하려는 보편주의적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용권 서호노인복지관장은 '대한불교조계종 승가노후복지 운영의 사례검토'에서 "사방승물(四方僧物)을 통한 승가공동체 본연의 모습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장은 "승가의 상효부조는 일정한 공양물을 함께 나누는 발우공양사의 사례에서 보듯 그 실천이 수행의 방편이기도한 수행 자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스님! 법당의 앰프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설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 스테레오 앰프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Distal Echo

• 高音質 무선마이크

고장난 마이크 완벽하게 수리해 드립니다 !!

• DX-707 스탠드 마이크

• 법당 전용 스피커

•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일반형) / 175,000원 (고급형)

•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상차비 포함)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사주프로그램CD

명리보감

命 理 寶 鑑

최고의 역학프로그램

사주명리, 작명, 궁합, 택일
주역·육효, 자미두수, 양택풍수
기문둔갑, 육임, 구성학, 현공풍수
가족명부, 출산택일, 토정비결

www.goodcycle.com

명리보감 역학연구소
☎ 031)493-3581